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NIKKI TESLA AND THE FERRET-PROOF DEATH RAY

가제 : 니키 테슬라와 살인광선

저자 : Jess Keating

출판사: Scholastic Press

발행일: 2019년 7월 9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모험



*** 천재들만 모인 학교로 가게 된 니키와 페럿 - 전설적인 위인들이 환생한 듯한 괴짜 친구들과 함께 지구와 인류를 구하러 나선 니키의 짜릿한 모험을 그린 시리즈 첫 권**

태어난 지 1년도 안된 막 기어 다니기 시작한 나이에 이미 모양 끼워 맞추는 퍼즐 정도는 똑똑 해치운 아이, 4살 때 물리학 책을 전부 읽어 치우고 6살에는 어지간한 수학, 물리학 공식은 꿰뚫은 니키 테슬라에게 생애 최대 위기가 찾아온다. 음악, 그림, 글쓰기, 과학 등 각 분야에서 니키처럼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영재들만 모인 '천재 학교'로 가게 된 것이다! 다른 아이들처럼 일반 학교에 입학하긴 했지만 너무 똑똑하다는 이유로 늘 놀림과 괴롭힘만 당하다 홈 스쿨링 중인 니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아이들은 얼마나 더 못되고 이상할까? 생각만 해도 진저리 칠 만한 일이었지만 더 괴로운 건 니키에게 엄마의 이 제안을 거부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3년 동안 집을 네 번이나 이사해야 했던 이유도, 온라인에서 삼시간에 퍼진 영상과 끈질긴 언론 취재로 식구들 얼굴이 다 팔리고 사생활은 거의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 된 것도 다 니키 때문이었다. 이론에 통달한 것으로 가만히 있기에는 온 몸이 쑤시고 숨이 막혀서 실험과 발명을 시작한 니키가 온갖 물건이며 집안 곳곳을 망가뜨리고, 부수고, 깨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릴 만큼 큰 소음을 낸 사고가 한 두 번 터진 게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발명한 물건은 집을 옮기고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수습이 안 될 결과를 낳고 말았다. 조그만 물총 모양이지만 2층 바닥을 뚫어 아래층 현관과 부엌까지 흰히 보이게 만들 정도의 괴력이 담긴 니키의 새 발명품은 바로 '살인 광선'이었다.

하지만 니키에게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 발명이고 실험이고 다 좋지만 절대 사고를 내지 말고 다치거나 남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엄마의 신신당부를 잘 지키려고 나름 애를 썼는데, 도저히 말을 안 듣는 니키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문제였다. 핑크색 코와 철망문 정도는 1초면 열어 짓히는 영리한 패럿, '피클'은 감자튀김이라면 눈이 뒤집히는 단순한 동물이라 니키는 살인 광선의 막바지 개발 단계를 시작하면서 철망 안에 감자튀김을 산더미처럼 넣어

주었다. 그런데 영 풀리지 않던 문제 하나가 탁, 해결되면서 광선과 접촉하면 모든 물질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폭발력을 가진 살인 광선이 탄생했고 니키가 ‘유레카!’를 외치는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피클은 얼른 철망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니키가 미쳐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광선총을 두 앞발로 꼭 쥐고 총구를 이리저리 겨누기 시작했다. 하필 그 때 엄마가 방문을 두드렸고, 평소 엄마와 으르렁대는 사이인 피클이 당황해서 방아쇠라도 당기면 어쩌나 조바심이 드는 순간, 피클이 눌러버린 방아쇠 한 방에 바닥은 구멍이 뚫리고, 방 유리창은 와장창 깨지고, 지붕에는 불이 붙고 말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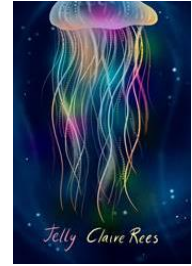
주민들이 집 앞에 모여 웅성대고 벌써 소식을 듣고 발빠르게 찾아온 예의 없는 기자들이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할 때 ‘맨 인 블랙’ 같은 복장을 한 남자 두 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니키의 요란한 실험이 갈수록 강도가 더해가자 이러다 니키가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엄마가 결국 오래 전부터 물밑으로 접촉해온 영재 학교 사람들의 설득에 넘어간 것이다. 니키가 학교에 다니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엄마는, 딸이 타고난 재능을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발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자신이 저지른 사태와, 엄마의 깊은 마음을 다 이해한 니키는 마지못해 그 ‘영재 학교’라는 곳에 가기로 어렵게 마음먹는다. 그러나 순순히 갈 생각은 없었다. 아무도 몰래 피클과 함께 갈 작정이었다.

천재 학교에는 위인전에 나오는 역사 속 위인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블랙홀 찾는 방법을 계산할 수 있다는 앨버트 아인슈타인, 동물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것이 없는 샬럿 다윈, 수학 실력도 엄청난데 더 엄청난 작곡 실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애덤 모차르트, 글 솜씨가 기가 막힌 메리 셸리, 그리고 뭐 하나 빠지지 않고 손만 대면 다 월등히 해내는 천재 중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 빈치라는 아이도 있었다. 얼마나 학교 선생님들의 응원이나 격려와 달리 이곳에서 친구를 사귄 수 있으리란 기대는 전혀 하지 않고 그저 피클만 무사히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전부였던 니키는 얼마 후 이 학교에 들어온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위기를 겪고 나서야 단단히 잘못 생각했음을 깨닫는다. 니키가 발명한 살인 광선총이 도둑을 맞았는데, 하필이면 그 총을 가장 악의적으로 사용하고도 남을 악당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그가 총을 휘두르는 순간 전 인류가, 전 지구가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니키는 무조건 책임지고 그 도둑의 손에서 총을 되찾겠다고 다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리하고 비범한 친구들이 너도나도 니키를 돕겠다고 팔을 걷어 부쳤다. 전부 괴짜인 건 분명하지만 전부 순수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위해서라면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들을 보며 감격한 니키는 이들의 천재적인 재능과 우정의 도움으로 사악한 도둑을 찾아 나선다. 흡입력 넘치는 문장과 귀엽고 생생한 일러스트, 유머와 개성 만점 인물들이 조화를 이룬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Blobfish』와 ‘2017 아마존 최우수 아동 논픽션’ 후보에 오른 『Shark Lady』를 썼다. 그 밖에도 『My Life is A Zoo』 3부작, 『World of Weird Animals』 시리즈를 발표했다.

제목 : JELLY
가제 : 해파리
저자 : Clare Rees
출판사: Chicken House
발행일: 2019년 8월 1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독일 판권 계약**

*** 2018 타임지·치킨 하우스 출판사 공모전 결선 진출작**

무인도나 외부와 통신이 두절된 외딴 오지에 어쩌다 갇힌 사람들이 겪는 이야기는 추리나 호러 장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인간이 가진 능력, 눈부신 기술도 다 소용없고 상황이 저절로 바뀌기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때 마침내 드러나는 새로운 면모는 그 이야기의 장르가 무엇이든 늘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런데 고립된 곳이 바다 한 가운데, 해파리 표면이라면? 미끈미끈한 피부가 흡사 거대한 바다에 띄워 놓은 인공 섬처럼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그 위에 꼼짝없이 붙들려 있다면? 작가는 이 기발한 상상을 토대로, 저 멀리 해변과 그곳을 거니는 사람들이 보이지만 다가갈 수 없고 마음대로 도망칠 수도 없이 해파리 위에 발이 묶인 십대 청소년들과 인물들의 처절한 생존 싸움을 들려준다. 누구도 입밖에 꺼낼 수 없고 사실 제대로 기억조차 나지 않는 큰 사고가 터진 후 전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간을 자신의 표면 위에 붙잡아 놓은 섬뜩한 해파리가 소재라는 점만으로도 이미 큰 기대감을 갖게 되는 독특한 소설이다. 작가는 동갑내기 친구들 세 명과 함께 언제부터인지 되짚을 수조차 없는 긴 시간을 해파리 위에서 보낸 마사의 관점에서 이 희한한 고립 생활의 풍경과 함께 달아나던지, 그렇지 못할 거면 아예 죽던지 한 쪽을 선택하게 되는 사람들의 불안하고 절박한 심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과연 마사와 친구들은 저 너머에 손 닿을 듯 보이는 안전하고 편안한 곳, 두 발을 딛고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육지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해파리는 평소에 거의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절대 죽은 상태가 아니며 잠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조금만 헤엄치면 곧 달을 법한 곳에 펼쳐진 해변으로 가기 위해, 그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 들어 있는 힘껏 팔과 다리를 휘저었지만 결과는 매번 동일했다. 어디가 끝인지 잘 보이지도 않는 길고 가느다란 촉수가 해조류처럼 바다 표면 아래에서 흐느적거리다가, 달아나려는 사람을 향해 빛의 속도로, 정확히 달려들어 획 휘감고 다시 몸통 위로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탈출을 결연히 다짐하며 물로 뛰어든 사람들은 이제 해파리의 지긋지긋한 촉수가 닿지 않는 곳에 이르렀다고 확신할 때쯤, 순식간에 수면 위로 치솟은 해파리 촉수에 몸이 감겨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야 했다. 마사를 비롯한 포로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낚시로 잡은 물고기로 목숨을 연명하고 갈아 입을 옷이 없어 구멍이 송송 난 냇마를 걸치고서 그저 견디고 또 견뎌야 했다.

해파리 몸 위에서 지내는 생활을 통틀어 마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까딱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살인 해파리에 대한 공포도, 파도의 영향으로 잠시도 안 울렁거릴 때가 없는 해파리 위에서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어지러움도, 먹을 거라곤 생선 밖에 없어서 어딜 가나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악취도 아니었다. 고립된 생활을 단 1분도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어울려 지내야 한다는 점이 마사에게는 최악이었다. 라나와 케이트, 두 친구만 하더라도 해파리 위에 사람들이 바람과 빛을 피하려고 지어 놓은 임시 움막 같은 곳 때문에 일주일 넘게 싸우고 말을 안 한 적도 있었다. 하루 24시간 사방에 펼쳐진 바다를 응시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은 바다 위에 둥둥 떠 다니는 쓰레기와 목재 등을 끌어 모아서 그 움막을 만들었다. 절망적인 기분을 조금이라도 고양시키려고 화려하고 짙은 원색의 비닐이나 쓰레기로 벽면을 장식해온 라나와 케이트는 예술적 감각이 누가 더 뛰어난지 설전을 벌였고 서로 마음이 상해 등을 돌린 것이다. 두 사람이 언제 또 싸움을 벌일지 조마조마한 마사는 지저분한 말, 예의 없는 말을 가감없이 내뱉는 제임스도 너무 싫었다. 다들 외모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폐인이 된 상태였다. 머리카락은 물론 몸 곳곳에서 바닷물이 마르고 남은 소금이 버석버석 걸려 있거나 후두두 떨어지고, 손에서는 생선의 피와 뼈, 껍질 비린내가 가실 날이 없었다.

위아래로 계속 꿀렁대는 표면에서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고립을 견디기 위해, 네 아이들과 함께 붙들린 여러 사람들은 밤마다 움막에 모여 앉아 번갈아 가며 이야기를 했다. 지어낸 이야기, 어디서 들은 이야기나 읽었던 이야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없이 차례가 되면 무엇이든 말을 했다. 망망대해와 소리쳐도 장난인 줄만 아는 해변가 사람들의 무심함이 주는 절망감, 아프고 피곤하고 지저분한 일상의 괴로움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려면 다른 생각을 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상상하게 하는 이야기가 모두에게 절실했다. 평소 거의 입을 열지 않는 한 박사는,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에는 먼 바다에 나간 뱃사람들이나 해변 마을 주민들을 홀리고 괴롭히는 초자연적 존재에 관한 전설이 존재하는데, 어쩌면 그 이야기들이 다 상상력의 소산은 아닐 지 모른다고 언급한다. 지금 모두가 겪고 있는 이어쳐구니없는 일처럼, 그 이야기도 다 실제 벌어진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모두를 놀라게 한 박사의 제안을 곱씹던 마사와 친구들은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탈출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는다. 세상이 바뀌고 어떤 방향으로 왜 바뀌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그리고 이 유례없는 재난이 그 변화의 한 부분이라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방법, 가령 무작정 바다에 뛰어들어 해파리의 촉수가 낚아채기 전에 최대한 빨리 헤엄치는 것 말고 다른 작전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그 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 미처 보지 못했던 해파리의 허점을 노려야 한다. 소설은 마사를 중심으로 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힘을 모아 마침내 살인 해파리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다시 돌아와 완전히 처단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가장 이상하고 무서운 순간을 이겨내게 하는 용기와 피할 수 없는 선택 앞에서 엇갈리는 감정을 그려낸다. 더불어 코믹한 요소도 재미를 더하는 독창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클레어 리스(Clare Rees)는 영어 교사로 십대 청소년들에게 독서와 글쓰기를 독려하면서 살아왔다. 위 작품도 학생들과 함께 문예창작 수업을 하던 중에 떠오른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